

<눈 이야기들> 7강. 조르주 바타이유(1897-1962), 『눈 이야기』

1 Keyword; 과잉, 증여, 에로티즘erotism, 희생제의, 연속성, 주권/지상권

태초에 **과잉[잉여]**가 있었다. 무한히 주어지는 태양 에너지로 인한 과잉. 이를 슬기롭게 소비하지 않을 때, 지구는 비극적 해결책을 찾는다. 1. 2차 세계 대전이 바로 그 증거. 바타이유는 모스의 『증여론』(1925)을 읽고서 이제껏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경제 이론을 구상하는데, 그 결과가 『저주의 몫』(1947)이다. 고대인들은 전쟁이라는 비극을 피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식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포틀래치**다. 이는 그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자의 위세를 상대방에게 과시하려는 일종의 경쟁이다. 선물을 받는 자는 일정 시간을 두고 더 커다란 선물을 준비해 상대방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응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답례로 맞서야 한다. 여기서 교환되는 선물은 생필품이기보다 노동이 집약된 사치품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는 한 사회에서 과잉을 소비하는 나름의 유용한 방식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포틀래치는 과시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타인들의 시선을 필요로 했고, 따라서 **축제를 동반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파괴적 포틀래치의 경우, 노예살해처럼 **금기에 대한 위반이 일시적으로 허용**되기도 했다. 위반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보다 폭력이다. 리오 카니발, 우드스탁

바타이유가 사회의 과잉을 소비하는 방식 중 중요하게 여기는 **희생제의**는 부족이 가장 아끼는 것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다. 희생제의는 그 자체가 종교적 행사이므로 성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폭력적인 것이다. 신성함과 폭력은 여기서 하나가 된다. 아스텍 사회에서 희생제물은 보통 전쟁포로나 노예였는데, 제물로 선택된 후에는 승배의 대상으로 격상된다. 이 자체가 하나의 전복이다. 희생제의를 치르기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엄청났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축조하고, 값비싼 장신구, 가장 소중한 제물 등등. 마침내 제물의 가슴을 칼로 찢어 아직 펄떡이는 심장을 꺼내 태양신에게 바치는 순간, 그 희생제물은 불연속적 존재이기를 그치고 연속성을 얻는데, 이 제의에 참여한 모두가 그 연속성을 공유한다. 희생제물은 금기, 곧 신성의 영역에 진입한다.

에로티즘 역시 에너지를 소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에로티즘은 생식, 곧 종의 재생산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성 행위를 의미한다. 성 행위는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허무는 열림이며, 폭발적인 에너지의 소비다. 이는 불연속적 존재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연속성**의 체험이다. 연속성의 체험은 죽음과 긴밀히 연결되는데, 그렇다면 성 행위에서 절정의 순간은 죽음을 일시적으로 맛보는 것이다. 에로티즘은 이렇게 성과 죽음이 만나는 연결고리가 된다.

내적 체험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없애고, 무rien에 놓아두는 것이다. 이 체험을 통해 도달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각각 비지식과 미지로 합쳐지는 것이다. 이는 연속성과 닮았다. 이것이 바타이유가 말하는 주권성이다. 연속성이 불연속적 존재가 주체로서의 자신을 가두었던 틀을 벗어 낸 상태라면, 주권성은 노동 기계의 도구로 전락한 인간이 종속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무엇도 종속시키지 않는 것. 이는 헤겔이 말하는 주인 개념과는 다르다. 주권성은 주인으로서의 주체마저 부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주권은 지식마저 부정하는데, 왜냐하면 지식은 노동에 종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은 철저한 계획/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다. 따라서 주권성은 비-지식non-savoir이다.

## 2 바타이유의 생애

아버지는 매독으로 인해 실명상태였고, 어머니는 우울증 환자였으며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다. 독일 공습 때 아버지만 남겨두고 어머니와 피난 한 후에 죄책감에 시달렸다. 바타이유는 이처럼 광기, 죽음에 대한 강박을 지닌 채 살았고, 이에 대한 도피처로 잠시 신학을 기웃거리기도 한다. 그러나 스페인 여행 중 투우 경기를 보다가 투우사 그라네로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죽음과 폭력이 주는 아름다움과 쾌감에 매료되면서 기독교와 갈라선다. 이 장면은 『눈 이야기』의 주요한 모티프가 된다.

바타이유는 노동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배제된 것들을, 이것들이 ‘저주의 몫’인데,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소비, 광기, 상실, 섹스, 도박, 죽음, 악 등등. 이것들이 배제된 이유는 생산과 축적을 지향하는 사회에 역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인데, 앞서 보았듯 생산과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사회는 과잉을 해소할 길이 없어 결국 파국적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는 오히려 배제된 것들이야말로 세계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자 토대라 믿었고, 이것들을 복원하기 위해 평생을 매달렸다. 그의 삶 자체가 끝없는 전투였다. 그는 언제나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브르통과 사르트르와의 논쟁. 그는 헤겔 철학에 심취했으나 결코 변증법에 머물지 않았고, 초현실주의자들과 교제했으나 거기서 배제되었다. 한편 실존주의나 정신분석과도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고독한 상태에 놓였을 때 진정한 작품을 생산했던 사드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지적인 고립상태가 바타이유에게는 글쓰기를 통한 에로티즘을 가능케 했을지도 모른다.

## 3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자유

앞서 바타이유가 기독교에서 벗어난 계기를 잠시 언급했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와 대립하게 된 것은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노동을 신성시하면서 소비를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의 장엄한 의례와 사치스러운 교회 장식들은 그가 볼 때 과잉을 해소하는 중요한 방식이었는데, 종교 개혁 이후 신교는 근면과 성실을 기조로 이윤의 축적을 정당화했다. 칼뱅의 역할!

이후로 노동[이성]의 독재가 인간을 왜소한 존재[사물]로 전락시켰고, 생산·축적의 가치만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삶에서 신성한 것의 차원을 박탈하고, 범속한 차원만을 남겨주었다. 노동에 의한 금기 설정으로 인해 순수하게 도구로서의 사물이 되어 버린 인간의 처량한 모습.

사물화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서 신성함을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연속적 존재로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상실하고, 미지의 저 너머와 소통할 때, 우리는 연속성을 얻고, 신성함을 얻게 된다. 이는 주체의 경계와 지식의 부정이 행해졌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절정의 체험이며, 성 행위의 절정의 순간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이 절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비-지식, 아무것도 없음이다. 가능성의 극한으로의 여정, 걱정이 휘몰아치는 험난하고 순수한 존재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에로티즘, 죽음이다.

이처럼 바타이유는 헤겔[노동]을 부정하고 니체[광기]를 긍정한다. 시, 웃음 같은 것들은 끊임

없이 삶을 의미의 생성과 반대 방향으로, 즉 지식에서 비-지식으로 미끄러지게 만든다. 존재는 단일성을 유지하지만 불완전하며, 내부에 이미 깊은 분열을 안고 있으므로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 체계는 이를 은폐할 수밖에 없다.

미지의 것, 확실한 것이 없는 불안 속으로 지고한sovereign 주체는 자신을 내던진다. 이는 일종의 희생이다. 니체가 말하길 인간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물로 바쳤다. 인간은 신에게 자신들의 가장 격렬한 본능을 제물로 바쳤다. 이제 인간에게 바칠 것이 무엇이 남았는가. 바로 신 밖에 없지 않는가? 신을 제물로 바친 인간이 자신마저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게 될 때, 자유가 열린다.

#### 4 에로티즘

에로티즘은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본능과 달리 생식이라는 목적을 벗어난 성 행위다. 라스코 동굴의 우물 벽화에서 바타이유는 성, 죽음, 신성함의 일치를 보았다. 내장이 흘러나온 들소 앞에 누워있는 성기가 발기된 남자의 그림. 이 수수께끼 같은 그림의 주제는 살해라는 금기 위반에 대한 속죄의식이다. 그런데 성기가 발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성과 죽음이 맺는 불가분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쾌락의 정점, 그것은 죽음충동이다.

에로티즘과 죽음의 관계. 에로티즘은 죽지 않고서 잠시나마 연속성을 체험하는 방식이다. 불연속적 존재인 우리에게 연속성(원초적 합일)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는데, 성 행위를 할 때 두 알몸이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합일하는 것, 이것이 연속성이다. 죽음은 영구적 존재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주체는 소멸하고 대지로 돌아가 자연과 합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은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육체의 에로티즘은 죽음, 살인에 이르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인데, 이러한 양상은 바타이유가 아름다움과 모독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대상이 아름다울수록 그것을 더럽히는 일은 더 커다란 쾌감을 가져다준다. 이것이 에로티즘의 본질이다.

『에로티즘』은 금기와 위반이 서로를 전제하는 상호간의 놀이다. 금기가 없다면, 위반의 욕망도 없다. 또한 금기는 대수롭지 않았을 대상을 사물로 고양시키는 행위다. 금기의 장막을 둘러침으로써 대상은 신성의 아우라를 갖게 된다.

- 1) 죽음에 대한 금기: 살해 금기, 죽은 사람을 먹거나 건드리지 않는 것, 시체 매장
- 2) 성에 대한 금기: 근친상간 금기, 월경 혈 금기, 노출 금기

바타이유는 두 영역 모두에 폭력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금기가 성립되었음을 본다. 성이나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포이면서 동시에 매혹적인 폭력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세계는 이분법으로 나뉜 세계는 아니다. 금기 너머에 신성의 세계는 그것과의 접촉이 금지됨으로 인해 더욱 매혹적이고 무섭게 보인다. 금기가 폭력으로부터 속의 세계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라면, 금기를 위반하는 행위는 폭력을 사용하여 폭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다. 오직 폭력만이 우리에게 연속성의 길을 열어준다.

#### 4 『눈 이야기』

1928년 Lord Auch라는 가명으로 출판한 소설? 시?

예술과 외설의 추문

초기의 작품이지만 이후 그가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모든 주제들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온갖 엽기적 성 행위, 강간, 살인, 절도, 탈출, 신성모독 등으로 점철된 이 작품을 이야기 전개와 개연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도피를 후원하는 에드먼드 경의 등장은 아무런 전후 맥락 없이 생뚱맞다.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악과 희생제이다. 악은 원래 신성의 일부였다. 신성함에는 순수한 측면과 불순한 측면이 있었지만, 기독교에 의해 순수한 측면만이 선으로 부각되고 불순한 측면은 악으로 억압되었다. 따라서 바타이유가 볼 때 악을 행하는 것은 신성함의 회복, 곧 자유의 끝을 체험하려는 시도다. 문제가 되는 악은 계산된 행위일 때다. 예컨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진정한 악이 아니다. 악을 위한 악!

노동과 이성에 대한 거부에서 바타이유의 사유가 출발한다면, 그 대안으로서 놀이[축제]와 광기를 제시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 『문학과 악』에서 바타이유는 어른의 질서로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아이의 세계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 작가들을 거론한다. 카프카와 보들레르.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도 없이 그저 즐거움과 쾌락에 탐닉하는 활동을 놀이라고 보면, 이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눈 이야기』에서 두 주인공, 시몬과 ‘나’는 천진난만하고 순수하다. 그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지만 어떠한 죄책감이나 연민도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유쾌하기까지 하다. 그들에게는 모든 게 즐거운 놀이처럼 보인다. 지젝이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속에서는 순수한 폭력이 분출한다. 예컨대 <톰과 제리>에서 톰이 제리에게 행하는 폭력을 생각해 보라. 망치로 으깨져 종이처럼 납작해진 그 형상의 끔찍함과 천진난만함.

등장인물들은 사회적으로 잉여적 존재들이다. 노동에서 배제된 학생이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다. (에드먼드 경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은 성적 유희다. 2장에서 묘사되는 난교 파티는 모든 일상과 규범이 멈추는 일종의 디오니서스 축제다. 이 축제를 주도하는 시몬이 먼저 엉덩이를 드러낸 채 춤을 추고서, 식탁보에 오줌 싸는 내기를 제안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포틀래치다. 이 경쟁에서 지는 쪽은 보다 심한 외설적 행위를 해야 한다.

희생제의는 텍스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이 조차도 놀이다. 에드먼드 경은 미사가 놀이와 일치한다고 말한다. 성체는 그리스도의 정액이고, 성직자들이 백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오줌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소설의 마지막 세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에서의 성적 유희는 이 소설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다. 시몬은 젊고 잘 생긴 신부를 고해실에서 유혹하여 수음을 하게 만들고 오럴섹스를 한

다. 알몸이 된 신부로 하여금 성배에게 오줌을 누고 그것을 마시게 하며, 이어 순교하도록 목을 조른다. 라스코 우물 벽화에 그려진 이미지! 순교[죽음]와 사정[성]

언어의 유희: 눈의 은유

초현실주의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에서 눈을 도려내는 장면 - 신부의 눈을 도려내는 장면  
바타이유가 말하는 주권성의 상태는 지식이나 이성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비-지식의 상태이다. 『눈 이야기』의 제목은 결코 소설의 내용을 암시하지 않는다. 독자는 철저히 의미의 바깥에 내던져진다. 바르트가 말하듯 이 텍스트는 눈의 은유, 요컨대 눈을 둘러싼 언어의 유희다.

눈oeil = 달걀oeuf = 불알couille = 태양soleil 이것들은 모두 구형이라는 형태론적 유사성과 음성학적 유사성의 관계로 등치된다.

또한 태양 안에 눈의 아나그램이 불알couille 안에 눈oeil과 음부cul의 아나그램이 존재함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바르트는 액체의 은유에 대해서도 논한다. 눈, 달걀, 분비선에 연결된 액체의 이미지들. 눈물, 우유, 반숙의 달걀, 정액, 오줌 등등. 젖은 것에서 넘쳐흐르고 분출하는 것까지 범람의 모든 변이들이 언어의 유희를 완성한다. 서술자인 나가 시몬에게 오줌싸다uriner라는 단어가 무엇을 연상하게 하느냐고 묻자 시몬은 면도칼로 눈을 후비다buriner가 생각난다고 답한다.

은유의 놀이는 돌연 방향을 바꾸어 액체의 습한 이미지에서 건조로 이행할 수도 있다. 세비야의 강렬한 태양 이미지는 건조함을 나타낸다.

흰색의 이미지; 눈 = 달걀 = 불알 = 정액 = 순수함 = 마르셀

검은색의 이미지; 어두운 교회 안 = 검은 사제복 = 악

데리다는 바타이유의 글쓰기가 갖는 놀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담론의 파괴는 낱말들을 증식시키고, 낱말들을 목적도 끝도 없는 상호대체 행위 속으로 몰아넣는데, 여기서 유일한 규칙은 의미 밖의 놀이의 지고한 긍정이다. 이는 단어들을 불태우고 소진하고 낭비하는 기호의 포틀래치다.” (『글쓰기와 차이』 중에서)